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작성 성지현(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성균(시흥 신천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승철 · 이윤경 지음

■ 주제어 #소수자 #되기 #사랑 #이주 노동자 #아이 #여성 #장애인

■ 분류 문학 > 한국 문학 > 청소년 소설
청소년 > 철학

■ 선정내역 ★2018 책따세 여름방학 추천도서 ★2018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2018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도서

도서 소개

‘체 게바라’라는 인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명가이다. 이 소설에는 체 게바라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이미지를 가진 최씨 아저씨를 통해 혁명의 의미를 전달한다. 체 게바라가 청년 시절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듯 소년 민영과 최씨 아저씨도 스쿠터를 타고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인물들을 만난다. 안산에서 이주 노동자를, 청양에서 굴이와 아이들과 개 황구를, 대전역에서 노숙인 용계 아재를, 옥천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여성들을, 산골 마을에서 장애인 매미를, 울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형 준영을 만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민영도 생각의 깊이를 더해 간다.

민영과 최씨 아저씨가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소수자라고 한다. 이 작품은 최씨 아저씨의 입을 빌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되기’의 철학을 통해 소수자를 재조명한다. 흔히 소수자는 약자 혹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가리키지만, 이 책에서는 자신의 특이성으로 사회의 배치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본다.

‘되기’의 철학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며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되어 간다. 사랑은 연인들 사이에 오가는 감정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물이나 물건과의 교감, 민주주의와 생명·평화·세상에 대한 염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되기’는 ‘사랑’이자 ‘혁명’이기도 하다. 이 책이 어떤 존재가 소수자이며 그들 ‘되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학습 목표

1. 작품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수자 개념과 그들이 놓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2. 다른 존재 ‘되기’를 통해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를 이해한다.
3. 세상의 불평등과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랑’의 철학을 삶을 사는 태도로 내면화한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생각 열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1차시
독서	[1~2장] 이주민 되기	2차시
	[3~4장] 아이 되기 & 동물 되기	3차시
	[5~6장] 노숙인 되기 & 여성 되기	4차시
	[7~8장] 장애인 되기 &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	5차시
	토론 활동: 반박하기	6차시
	토론 활동: 반대신문식 토론(CEDA식 토론)	7~8차시
독서 후	소설 쓰기	9차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는 글쓰기	10차시

1.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를 참고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오라”라는 선생님의 과제에 열한 살 소년 트레버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낸다.

트레버: “이 사람이 나예요. 이것은 세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이들을 도와줘요. 정말로 큰 무엇인가를, 무엇인가 그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어요. 나는 그들을 도울 뿐이죠.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3명을 도와요. 그러면 9명이 되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3명씩 도와줘요. 그러면 27명이 되죠. 나는 수학은 잘 못 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트레버’가 제안하는 방법처럼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
-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준 경험

3. 트레버가 제시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방법’처럼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3명을 찾아보고, 각각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 자료에서 정보를 찾아 '안산 다문화특구' 당일치기 여행 일정을 계획해 봅시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은 고장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면 한국 속 작은 세계가 보인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는 2009년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베트남,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음식거리가 있다. 또한 거리 풍경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주민센터가 들어섰고, 세계 각국의 방향과 그곳까지의 거리를 알려 주는 표지판도 세워졌다. 거리에는 한국어보다 외국어로 된 간판이 더 많고,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오가는 이들의 대화에 섞인 외국어가 이색적인 풍경에 한몫 톡톡히 한다.

○ 여행 정보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안산문화관광 <https://tourinfo.ansan.go.kr/main.do>
- 안산시세계문화체험관 <https://mc.ansan.go.kr>
-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https://blog.naver.com/ansanfo>

-발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세계 각국을 가리키는 표지판



다양한 외국어로 된 간판



세계 각국의 음식



세계 각국의 의복

시간	장소	하고 싶은 일	금액	선정 이유
: ~ :				
: ~ :				
: ~ :				
: ~ :				
: ~ :				
: ~ :				
: ~ :				

2. 아래 글을 읽고, '이주민 되기' 계획을 세워 봅시다.

“나는 미봉이 우리 이주민들을 현실에 찢찢때는 유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주민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색다른 음식, 이질적인 문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곳에 왔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건한 기질과 도전 정신만이 국경을 넘어 낯선 땅에 발붙일 수 있게 해 주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거든. (중략) 미봉이 낯선 곳에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만약 한국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새로운 장소에 잘 적응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색다른 장소와 색다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주민이 될 수 없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반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주민이야. 말하자면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주민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주민 되기'의 출발점이거든.”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42쪽-

이주 목적		
이주 기간		
이주 국가	국가명	
	선정 이유	
이주 생활	날씨	
	편의 시설	
	공공 시설	
	의료 시설	
	대중 교통	
	취미 생활	
	경제 생활	
이주 비용	초기 비용	
	생활 비용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		
꼭 버려야 할 마음가짐		
기대되는 나의 변화 모습		

1.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조사하여 ㉠~㉢의 놀이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아이들은 당산나무 아래 공터에서 발로 땅에 선을 하나씩 그어놓고 놀이를 시작했다. ㉠사방치기부터 시작한 놀이는 눈 깜짝할 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됐다가, ㉢숨바꼭질이 됐다가, ㉣꼬리잡기가 됐다가 하면서 10여 분마다 한 번씩 종목을 바꿨다.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57쪽-

2. 자신이 어렸을 적에 했던 놀이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봅시다.

3. 아래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하는 존재들이라는 게 뭐예요?” 굴이 최씨 아저씨에게 물었다.

나는 웬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서 재빨리 끼어들었다. “이게 뭐야? 저건 또 뭐야? 왜? 왜 그러는데? 이건 왜 빨간색이야? 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저? 이건 왜 이름이 이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많잖아. 그래서 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엄청 귀찮고 피곤하던데…….”

그러자 굴이 갑자기 발끈해서 쏘아붙였다. “홍, 아이들의 호기심을 얕잡아 보지 마! 너는 해바라기 이름이 왜 해바라기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걸 궁금해할 줄 아는 사람이 시인인 거야. 해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하는 질문이 어린애 같다고? 하지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잖아. 만약 뉴턴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아직도 우린 만유인력의 법칙을 모르고 있을지 몰라. 이 세상의 진보는 질문이 만들어 낸 거나 다름없어. 아이와 같은 호기심이 세상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최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모험가야. 늘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낯선 것을 상상하지. 물론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와 같은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걸 ‘아이 되기’라고 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해.”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66~67쪽-

- (1) 자신의 삶 속에서 궁금했던 질문 5개를 만들어 봅시다.
- (2) 짝꿍끼리 질문을 바꾸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 봅시다.
- (3) 짝꿍의 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 (4)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을 작성해 봅시다.
- (5) 자신이 만든 질문 중, 가장 좋은 질문을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질문	짜궁의 답	나의 생각	새롭게 깨달은 점
1.			
2.			
3.			
4.			
5.			
<p>★ 가장 좋은 질문과 그 이유 ★</p> <p>☞ 질문:</p> <p>☞ 이유:</p>			

4. 아래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나는 최씨 아저씨 옆에 앉아 아저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개는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 온 동물 이야. 본래 다른 야생 동물들처럼 야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였지만,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방향으로 변해 갔지. 사실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야. 산과 들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던 야생의 인간이, 지금은 내 집 네 집을 구분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중략) 출근하는 시스템에 맞추어 살게 됐잖아. ㉠안정적인 의식주를 보장받는 대신에 조금씩 자유를 잃는 거야. 예를 들면 마음껏 상상할 자유, 농담할 자유, 웃을 자유 같은 것들 말이지.”

“음…… 자유라고 하면 어디든 마음대로 가거나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자유만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웃음이나 농담, 상상 같은 것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겠네요. 자유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 않은 개념이었군요.”

“맞아.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넘어서 상상과 가능성의 자유이기도 해. 그 자유는 인간이 산과 들을 떠돌던 시절의 가장 원초적인 야생성에 가까운 것이고, 또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의 야생성과도 같은 거야. 하지만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은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 하지.”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97쪽-

(1) 현재 자신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구속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로운 존재	사례 1
/	사례 2
구속받는 존재 (등그라미 치기)	사례 3

(2)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나 ㉡과 같은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고 짝꿍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3) 자신만의 '원초적인 야생성'의 본질적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나만의 야생성	사례 1
본질적 속성 예) 호기심, 투쟁, 애정, 성취 등	사례 2
	사례 3

※ 아래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1~2]

용계 아재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미치광이들이야. 무한 경쟁의 도가니 속에서 사회·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심리적·정서적인 버팀목도 동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흔히 패배자, 게으름뱅이, 구제 불가능 등등으로 취급받지만, ㉠우리를 만든 건 이 사회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불량품이랄까? 그런데 위정자들은 우리 노숙자들이 쉼터 같은 시설에 들어가 잘 관리되고 길거리에서는 자취를 감추기를 바라고 있어. ㉡노숙자라는 존재가 이 시대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숙을 한다는 것은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숙자들은 이 시대의 혁명가야.” (중략) 최씨 아저씨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노숙자들은 혁명가예요. 맨몸뚱이 신체이기 때문에, 속세의 척도로는 그가 가진 것을 절대 수치화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혁명가죠.”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125~126쪽-

1.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짚고 함께 나눠 봅시다. 노숙인이 신자유주의의 불량품이라는 말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 정책과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 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 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 무역 기구(WTO)나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스 이론에서의 완전 고용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 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 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 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발췌: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 아래 글을 읽고, 만일 여성에게 '남성성'이 없고, 남성에게 '여성성'이 없다면 인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봅시다.

흔히 여성을 비하하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림살이를 뜻하는 라틴어 oikos는 부와 자원, 화폐의 순환을 다루는 경제(economy)의 어원이며, 동시에 자연의 순환과 재생을 다루는 생태학(ecology)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돌봄, 보살핌, 모심, 섬김, 살림 등은 그 자체로 공동체와 가정을 재생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처럼 여성성의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와 감정의 흐름은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모순, 적대, 전쟁,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성, 비폭력,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완벽하게 따로따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섞인 상태로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마치 들꽃처럼 우리 모두는 양성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그릇 안에 담긴 남성성과 여성성의 비율이나 양상은 그가 평소에 어떤 문화를 접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접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빈도나 밀도, 강도와 같은 양적 차이에 불과하지요. 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그 빈도나 밀도·강도가 제각각 다르다면,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존재하는 여성성은, 여성 되기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교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여성 되기'와 '남성의 여성 되기'라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이 바로 사랑입니다.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169쪽-

※ 아래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1~3]

녀석의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이했다. 양팔은 아예 흔적조차 없었고, 다리는 땅을 딛고 일어서기에는 너무 가늘고 짧았으며, 힘없이 뺨은 발끝에 발가락 두 개가 살포시 달려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그것을 만능 도구 삼아 손가락을 쥐었고, 연필을 잡았고, 가려운 곳을 긁었다. 아침이면 제 아빠가 떠다 준 세숫대야의 물을 칠퍼덕거리면서 발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고, 천연덕스럽게 수건을 집어서 꼼꼼히 물기를 닦았다. 그러고는 이 빠진 도끼뿔 손잡이를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능숙하게 머리를 빗었다. 다리 본연의 임무인 '걷는 것'만 빼고, 손이 하는 웬만한 일은 모두 발로 해냈다.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어깨까지 으쓱거리 가면서 말이다. ㉠그런 녀석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그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듯한 고통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중략)

“아저씨는 저 녀석의 어디가 그렇게 재밌어요? 무슨 말만 하면 왜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불결하게 발가락으로 떠 주는 밥을 왜 먹어요? 그 밥은 뭐, 엄청 더 특별한 맛이 나던가요? 헐, 이 아저씨 좀 봐……. 사람이 묻는데 왜 웃기만 해요?”

그랬다. 아저씨는 그냥 웃기만 했다. 한동안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매미는 아주 특이한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웅출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흥, 그럼 누구는 평범한 허섭스레기인가?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아저씨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물론 미농도 특이해. 우리는 모두 다 특이하지. 그렇지만 매미는 우리 안에 있는 소수성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특이해.”

잠자코 들던 나는 통명스럽게 물었다. “내 안에 있는 소수성이요? 그게 뭔데, 나도 모르는 걸 매미가 알려 주나요? 그 녀석이 무슨 예언자라도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대소변 보는 것조차 남이 도와줘야 하는 주제에, 흥!”

내가 투덜거리려도 최씨 아저씨는 계속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현재이고, 과거인 셈이야. 잘 생각해 봐. 사람들은 누구나 노인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장애가 생겨. 아기였을 때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만 밥을 먹고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었지. 누구나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한 시절을 살게 마련인 거야. (중략) 미농은 자신에게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지? 정말 그럴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장애를 한두 가지쯤 다 가지고 있어. 남보다 키가 작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또는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틀에 맞는 사람은 없어. 누구나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에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버씨의 말이 이어졌다. “물론, ‘누구나 장애가 있다’는 게 요점은 아니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란 애초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장애인은 오히려 초능력자에 가깝다고 해야 맞아.”

“초능력자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자 아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청각이나 촉각이 남보다 훨씬 발달해 있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는 거야. 내 사촌 중에 어릴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촌은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났지.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반적인 능력을 넘어선, 그러니까 초능력인 셈이라고.”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174~179쪽-

1. ㉠과 같은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도 좋습니다. ‘나’는 왜 매미를 보고 화가 났을지 경험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봅시다.
2. 우리가 평소에 ㉠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변에서 사례를 찾아봅시다.
3. 내가 가진 ‘초능력’은 무엇인지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내가 가진 초능력	
그렇게 생각한 이유	
초능력을 발휘했던 순간의 경험(사례)	

※ 아래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1~2〕

들뢰즈와 가타리가 함께 쓴 책 『천 개의 고원』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을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라고 설명합니다. 지각 불가능하게 되란 보이는 영역에서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영역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는 ‘투명 인간 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더 작고 낮은 곳을 향해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발자국과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겠다는 사랑의 궁극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이 개념은 되기(becoming)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여성 되기, 아이 되기, 동물 되기 등을 거쳐 궁극에는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로 향한다는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는 가장 어려운 임무인 셈이지요.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230쪽-

1. 나의 주변에서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인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항상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 주는 대상을 찾아봅시다.

2.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중 누군가에게 어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은가요? 아래 빈칸을 채워 봅시다.

시기 (해당하는 때에 동그라미 치기)	과거 / 현재 / 미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고 싶은 대상	
그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고 싶은가요?	

※ 〈보기〉의 반박 방법을 참고하여, 인물의 견해를 반박해 봅시다.

〈보기〉

토론 활동에서 반론은 상대방의 의견, 즉 논증의 요소인 주장, 이유, 근거 자료 문장 중 이유와 근거 자료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제시한 이유가 사실인지, 근거 자료는 사실인지를 검증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 이유를 부정하고, 근거 자료는 적절한 것을 찾아 제시한다. 또 다른 방법은 주장과 이유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 의견인지 점검하고 이유와 근거 자료의 관계도 관련성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40쪽에는 민영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을 논증 구조로 재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주장)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근거 자료)’

이 의견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 문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자료 문장을 반박하여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좋다.

1) 첫 번째 방법인 이유와 근거의 사실성을 검증하여 반박 경우:

- 이유인 ‘세금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반대 자료를 찾음.
- 근거 자료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인지 점검하고 반대 사례를 찾음.

저는 상대방의 주장 ~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며 그 근거 자료로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두 번째 방법인 이유와 근거 자료가 주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반박의 경우:

-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시함. 국민의 세금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쓰이면 정말 사회적 문제인지 살펴봄.
- 근거 자료가 주장이나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지 분석해 봄.

저는 상대방의 주장 ~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사실이라 해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료 ~에 의하면 ~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전보다 외국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이주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차지해 버릴 수 있고, 또 그들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 우리 임금도 더 적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돼요. 정부에서는 무슨 보조금 같은 걸 준다는데, 그게 다 우리 세금 아닌가요?”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40쪽-

1. ‘이유’와 ‘근거’의 사실성에 입각하여 반박해 봅시다.

	민영의 의견	반박
주장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이주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차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	통계청의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월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7만 3천 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자는 93만 8천 명이다.	

2. '주장과 이유', '이유와 근거'를 중심으로 반박해 봅시다.

	민영의 의견	반박
주장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 우리 임금도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	통계청의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여 총액보다 작다고 한다. 취업자의 53.1%가 100~200만 원, 34.3%가 200~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께 '이유'와 '근거 자료'의 사실성 여부는 학생들이 별도 자료를 검색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두 문항 모두 사실성 반박과 관련성 반박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기〉의 '반대신문식 토론' 방법을 참고하여, 제시된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토론해 봅시다.

〈보기〉

- 한 팀을 2명으로 구성하여 모둠을 편성함.

- 아래 표를 참고하여 1,2토론자의 역할을 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맞게 토론을 준비함.

(1,2토론자 모두 입론을 준비함. 몇 개의 논증<이유-근거>을 나누어 준비할 수 있음.)

- 논제와 논제 분석: 논제는 찬성 측의 주장이 됨. 반대 측은 논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찾음.

- 입론 방법: 자기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이유-근거 자료'의 구조로 2~4개 만듦.

"저는 ~에 찬성(동의)합니다. 첫째, <이유> ~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자료, 전문가 인용)로는 ~이 있습니다. 둘째, <이유> ~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자료, 전문가 인용)로는 ~이 있습니다. ~"

- 교차 조사 방법: 교차 조사는 반론을 위한 준비 단계임.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나타나는 의문점, 허점, 모순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통해 확인함. 교차 조사 측이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상대는 답변을 중심으로 응함.

- 반론 방법: 6차시 활동 참고. 반론은 반대 측이 먼저 하고 찬성 측이 나중에 함. 반론도 이유와 근거 자료 구조의 논증으로 발언을 구성하여 발표함.

- 발언 시간: 운영하는 총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함. 찬반 양측이 공평하게 분배함.

순서	찬성 측		반대 측		시간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총 60분	총 72분
1	입론				8분	10분(또는 9분)
2				교차 조사	3분	3분
3			입론		8분	10분(또는 9분)
4	교차 조사				3분	3분
5		입론			8분	10분(또는 9분)
6			교차 조사		3분	3분
7				입론	8분	10분(또는 9분)
8		교차 조사			3분	3분
9			반론		4분	5분(또는 6분)
10	반론				4분	5분(또는 6분)
11				반론	4분	5분(또는 6분)
12		반론			4분	5분(또는 6분)

책 내용	도출 논제
<p>“누구나 아이 땀 그렇게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살잖아. 그럼 그리고 싶을 땀 그림을 그리고 뛰놀고 싶을 땀 놀아야 해. 그저 시간표대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사실 아이는 야생의 사람이야. 그 야생성이 교육을 통해 차츰 문명에 길들여지면서 틀에 박힌 어른이 되어 가는 거지. 그게 어른의 비극이야. 물론 때로는 문명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항상 아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야.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이리저리 횡단하면서 항상 재미있게!”</p> <p>-『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64쪽-</p>	<p>학교 제도는 아이들을 길들이는 도구이다.</p> <p>⇒</p>
<p>인간은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삶’과 ‘안전하지만 예측된 삶’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고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시계추처럼 똑딱거리는 삶을 사는 도시인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여기에서 저기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동물처럼 야성적인 삶을 사는 자유인이 있단 말이지. 물론 우리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꼭 막힌 시스템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야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동물 되기’야.</p> <p>-『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98쪽-</p>	<p>‘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안전하지만 예측된 삶’보다 더 가치 있다.</p> <p>⇒</p>
<p>“아저씨가 말한 ‘되기’는 모두 약자들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주민이나 노숙자 처럼 우리 사회 주변부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말이죠. ‘되기’라는 게 소수자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제 생각에 여성은 소수자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중략)</p> <p>“왜 그렇게 생각하지?”</p> <p>“인류의 반이 여성인 데다가 솔직히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된 느낌이 들거든요.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요즘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됐다고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중략)</p> <p>“미봉 생각은 어때? 정말 그런가?” (중략)</p> <p>“아뇨, 나는…… 여성 상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암튼 여성이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남녀평등이라면 평등해야 맞는 거잖아요. 여성이라고 특별하게 취급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p> <p>-『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153~154쪽-</p>	<p>소수자의 대상에서 여성을 제외해야 한다.</p> <p>⇒</p>

논제		
① 입론1	② 교차 조사	
④ 교차 조사	③ 입론1	
⑤ 입론2	⑥ 교차 조사	
⑧ 교차 조사	⑦ 입론2	
⑨ 반론1	⑩ 반론1	
⑫ 반론2	⑪ 반론2	

1. 다음을 참고하여 자신이 되고 싶은 무언가를 골라 '되기', '같다', '답다'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예, 학생 되기, 고양이 되기 등)

○○ 되기 ○○ 같다 ○○답다

되기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같다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답다

((일부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선생님께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되고 싶은 학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생 되기’, ‘학생 같다’, ‘학생답다’ 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을 먼저 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에서의 소수자 ‘되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 활동으로 활용합니다.

2.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의 여덟 가지 ‘소수자의 철학1~8’을 패러디하여 ‘○○ 되기’의 의미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1,000자 내외 소설을 써 봅시다.

1. (가)와 (나)를 읽고 <조건>에 맞게 자신의 관점 또는 입장을 서술하십시오.

<조건>

- (가), (나)에 드러난 사회 현상에 대한 체 게바라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조리한 현상에 맞서는 '체 게바라'와 같은 사람을 찾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서술할 것

(가) 체 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 라 세르나(Ernesto Rafael Guevara de la Serna)이다. 체 게바라란 이름에서 체(che)는 스페인어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어이' '이봐' 정도의 의미를 지닌 말로 체 게바라가 혁명에 뛰어들면서 스스로 이름을 이렇게 고쳤다고 한다.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중상류층 백인 가정 출신으로, 스물다섯 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딴 후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르헨티나를 떠나 과테말라로 간다. 체 게바라는 과테말라에서 민주 선거로 이룬 과테말라의 아루벤스 진보 정권이 미국 자본의 지원을 받은 아르마스의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다. 이 사건으로 체 게바라는 비폭력적 개혁은 한낱 꿈일 뿐, 남미 민중을 위한 진정한 혁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후 과테말라의 아르마스 독재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체 게바라는 멕시코로 망명했고, 1955년 쿠바의 망명 정치가인 피델 카스트로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카스트로의 쿠바 해방 운동에 동참하여 쿠바로 떠난다. 이곳에서 체 게바라는 정부에 맞서는 군대를 이끌며 쿠바 민중들의 동조를 얻게 되었다. 마침내 1959년 1월 1일 독재자 바티스타가 도미니카로 망명하면서 반군들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다. 이후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 혁명에도 가담했으나 1967년에 미군의 지원을 받는 볼리비아 독재 정권의 정부군에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체 게바라는 사후에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커져 갔고, 전 세계적으로 '체 게바라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프랑스의 68운동에서 그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많은 추종자를 낳았다. 이념은 사라져 가도 체 게바라라는 상징으로 굳게 남았다.

-발췌: [네이버 지식백과] 체 게바라 [Che Guevara] (인물세계사, 김정미)-

(나) 이 책은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의 이미지를 빌려서 독자들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체 게바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은 일상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빛을 뽐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체제를 향해 내리치는 단단한 망치가 아니라 사랑의 부드러운 흐름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 게바라와 여행하는 법』, 248쪽-

[자기 체크리스트]

내용	예	아니오
(가)에 드러난 체 계바라의 사회 대응 방식을 파악하였는가		
(나)에 드러난 체 계바라의 사회 대응 방식을 파악하였는가		
(가)와 (나)에 드러난 체 계바라의 입장을 비교하였는가		
현재 우리 사회 현상 중에 구체적 사례를 들었는가		
자신의 관점 또는 입장이 드러났는가		